

'Ten Ten' 투혼으로 세계 정상 '정조준'



광주은행 여자 양궁단('Ten Ten' 양궁단)이 지난 1일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훈련개시식을 갖고 내년 시즌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은 감독, 박나윤, 김민서, 최미선.

광주은행 'Ten Ten' 양궁단 본격 훈련 돌입

"세계 정상을 향한 원대한 도전이 시작됐다." 광주은행 여자 양궁단('Ten Ten' 양궁단)이 지난 1일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훈련개시식을 갖고 본격적인 동계훈련에 돌입했다.

김성은 감독을 비롯해 최미선, 안산, 김민서, 박나윤 등 선수단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달 18일 공식 창단한 'Ten Ten' 양궁단은 광주를 세계 최고의 양궁 메카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는 각오로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했다.

32번째 국내 실업 양궁팀이자 유일한 은행 팀인 'Ten Ten' 양궁단은 2016 리우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최미선 등 최강의 전력을 구축한 만큼 단시일 내에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 제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여대 선·후배로 팀을 꾸린 'Ten Ten' 양궁단은 그 어느 팀보다 단단한 팀워크가 최대 원동력이다.

기보배, 최미선, 안산 등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를 3회 연속 조련한 김성은 초대감독의 각오는 남다르다.

김 감독은 "실업팀 감독이 처음이라 긴장되고 설렌다.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을 데리고 팀을 시작하는 만

큼 첫 시즌을 잘하려고 노력하겠다"며 "내년 3월에 예정된 2023 양궁국가대표 선발전에 집중하겠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갈 국가대표를 선발시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감독은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김 감독은 "6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오전 프리슈팅으로 전문기술을 쌓고, 오후에는 체력 훈련을 병행해 웨이트트레이닝과 필라테스로 신체 좌우 밸런스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토요일에는 오전산악훈련을 실시하고 월 1회 무등산을 등정하는 등 지구력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경기 정실력 집중을 위해 주 2회 모든 조명을 끄고 과녁에 집중한 뒤 활을 쏘는 야간훈련도 실시 예정이다.

신리적이고 과학적인 훈련도 병행한다.

한국스포츠개발연구원 김영숙 박사와 협업해 맞춤형 심리 프로그램을 개발, 선수들의 멘탈을 강화하며,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체력 측정 및 평가를 받아 체계적이고

새 출발·새 각오, 과학적·체계적인 훈련 구슬땀 '4연속 올림픽 금메달' 빛나는 전통 우리 손으로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 실천 모범 보일 것

과학적인 기초 체력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선수들도 새로운 마음 자세로 함께한다.

최미선은 "창단팀 주장이라는 책임감도 크지만 'Ten Ten' 양궁단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시작, 원대한 도전'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내년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 집중,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서와 박나윤은 "실업 새내기라는 패기로 'Ten Ten' 양궁단의 눈부신 활약의 주역이 되겠다. 최고의 팀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팀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현재 전국에 17개 여자실업팀이 있다. 3월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4월 말에 종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시즌이 시작된다. 다만 선수가 3명이다 보니 단체전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6개

공식대회 단체전에서 최소한 1회 이상 우승은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전에는 세계랭킹 3위 최미선이 있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내년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이 광주여대를 졸업하고 팀에 합류하면 'Ten Ten' 양궁단은 완전체가 된다.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다.

2012 런던 기보배, 2016 리우 최미선, 2020 도쿄 안산 등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 배출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쓴 광주여대 전통을 'Ten Ten' 양궁단이 이어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다.

김 감독은 마지막으로 "선수들과 함께 광주은행의 명예를 걸고 광주 시민들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며 "더 나아가 보육원 재능기부, 다양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이라는 광주은행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광산구 '위풍당당 실버태권도' 승급심사 눈길

검정 띠 때는 그날까지 태! 권! 도!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최근 더불어락노인복지관에서 '위풍당당 실버태권도' 단원 20명의 승급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는 국기원 고단자(6단-9단) 심사평가위원 오중열 관장,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 김옥현 광산구보건소장, 국기원 고단자(6단-9단) 심사평가위원 광산구태권도협회 회장 겸 실버태권도 단장을 맡은 이동원 관장이 참석했다.

어르신들은 지난 2개월간의 노력 끝에 승급 심사에 전원 합격,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노란띠를 받으며 기뻐했다. 어르신들은 "이러한 생활체육을 마련해 준 구청장님과 지도해 준 이동원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위풍당당 실버태권도'를 수련해 건강한 노후생활의 활력소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1977년에 군 생활을 하면서 3단 증을 간직하고 있던 윤순우(77) 어르신은 46년 만에 재발급받은 단증을 재수여받는 뜻 깊은 자리를 갖기도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태권도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어르신들이 전원 승급이라는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내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위풍당당 실버태권도'를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3년 만에 야구팬과 함께...KBO 40주년 기념 레전드도 참석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9일 개최



KBO리그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선발하는 2022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올 시즌 KBO리그를 담당할 최재기사와 사진기자, 중계 담당 PD, 아니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를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에 따라 가려진다.

골든글러브는 투수, 포수, 지명타자를 비롯해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및 외야수(3명)까지 총 10개 부문 포지션에 한 명씩 수상자를 결정한다.

수상자는 2022시즌 각 포지션 최고 선수를 상징하는 골든글러브와 함께 500만원 상당의 ZETT 용품 구매권을 부상으로 받는다.

시상식은 KBO리그 스폰서인 동아오츠카의 2천만원 상당 유소년 야구 발전 후원 물품 전달식이 열린 후, 한국스포츠사진기자협회가 선정한 골든포토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골든포토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캐논 카메라로 부상으로 전달된다.

본 시상식은 오후 5시45분부터 80분간 MBC에서 생중계되며, 네이버·Daum(카카오톡)·Wave·U+프로야구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다.

시상식 진행은 MBC 김민호, 이선영 아나운서가 맡는다.

시상에는 올해 KBO리그 40주년 기념 '레전드 40인'으로 선정된 이강철, 박진만 감독을 비롯해 이만수, 양준혁, 이종범, 박용택, 김태균, 정근우 등이 특별 참석한다.

행사 전 오디토리움 로비에서는 골짜기의 KBO 레전드 40인 일러스트를 LED 포토월로 만날 수 있다.

최근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윤하와 유튜브 구독자 수 530만 명을 보유한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가 축하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3년 만에 야구팬과 함께해 더욱 뜻깊다. /연합뉴스

광주, 박찬모·전갑수·전남, 윤보선·송진호·장세일

광주시·전남도체육회장 선거전 본격화

광주시·전남도체육회장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5일 광주시·전남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5일 광주시·전남도체육회장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에서는 박찬모 전 광주시육상연맹회장과 전갑수 전 광주시배구협회장(기호 순) 등 2명이, 전남에서는 윤보선 전 전남스키협회장, 송진호 전 목포시체육회장,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기호 순) 등 3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는 4파전이 예상됐다. 최갑철 전 광주시체육회 부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홍성길 광주시배드민턴협회장이 등록을 하지 않아 2파전으로 치러진다.

1번 박찬모 후보는 '변화의 시작은 우리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빛고을 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 '전문체육 선수 지도자 처우 개선', '학교 체육 꿈나무 육성',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체육행정의 선진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소통과 화합의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2번 전갑수 후보는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광주체육을 지향하며, 강한 추진력을 통한 광주 체육 중흥기를 이루겠다"며 "체육인에게는 자부심을, 시민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광주시체육회를 반드시 만들어 광주체육인 모두가 한 것발 아래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도체육회장 선거는 3파전으로 압축됐다.

1번 윤보선 후보는 "전남도민과 체육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환경조성에 앞장서 전남체육의 100년을 함께 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윤 후보는 "내 삶의 행복! 함께하는 전남체육, 건강한 전남도민"의 슬로건 아래 전남체육을 '삶의 행복 확대', '스포츠 경쟁력 강화', '스포츠 복지서비스 강화' 등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체육인이 행복하고 도민이 행복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번 송진호 후보는 "공정한 체육지원, 투명한 체육행정, 인적중심의 조직 운영을 통해 전남체육의 새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도전장을 던졌다.

송 후보는 "전남체육의 미래를 위해 젊은 열정과 체육단체에서 몸담고 활동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남체육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활력 넘치는 전남체육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3번 장세일 후보는 "경제인과 체육인, 정치인 3박자를 갖추고 전남도체육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장 후보는 "전남을 선진형 스포츠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 교류를 확대

하고, 내년 104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체육 관련 기금제도를 개선하고 기업과 협력을 통해 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전남도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된다. 후보자들은 투표 시작 전 10분씩 소견도 발표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 9일이며, 선거인단은 광주가 당초 430명에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1명을 뺀 429명, 전남은 당초 361명에서 시군체육회 미인준자, 사임자 7명을 뺀 354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박희중 기자



지난 4일 열린 제19회 아시아 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6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시상식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핸드볼, 19회 아시아선수권대회 6연패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일본에 역전승을 거두고 아시아선수권대회 6연패를 달성했다.

김 라스무센(덴마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4일 열린 제19회 아시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일본과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34-29로 이겼다.

2012년 대회부터 최근 5회 연속 정상을 지켜온 우리나라는 홈 코트에서 6연패를 달성했다.

한국은 1987년 1회부터 2000년 8회 대회까지 연속 우승한 이후 두 번째로 아시아선수권 6연패를 이뤘다.

일본은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아시아선수권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노렸지만, 전반 6골 차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한국은 2012년 한일 정기전에서 주니어 대표팀을 내보냈다가 29-33으로 패한 이후 10번째 일본과 국가대표 경기에서 패하지 않고 있다.

류은희는 이날 팀 특점의 절반이 넘는 19골을 혼자 책임지며 맹활약했다.

대회 최우수선수에는 아이자와 나츠키가 선정됐고, 류은희와 송혜수(광주도시공사), 송지영(서울시청)은 대회 베스트 7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